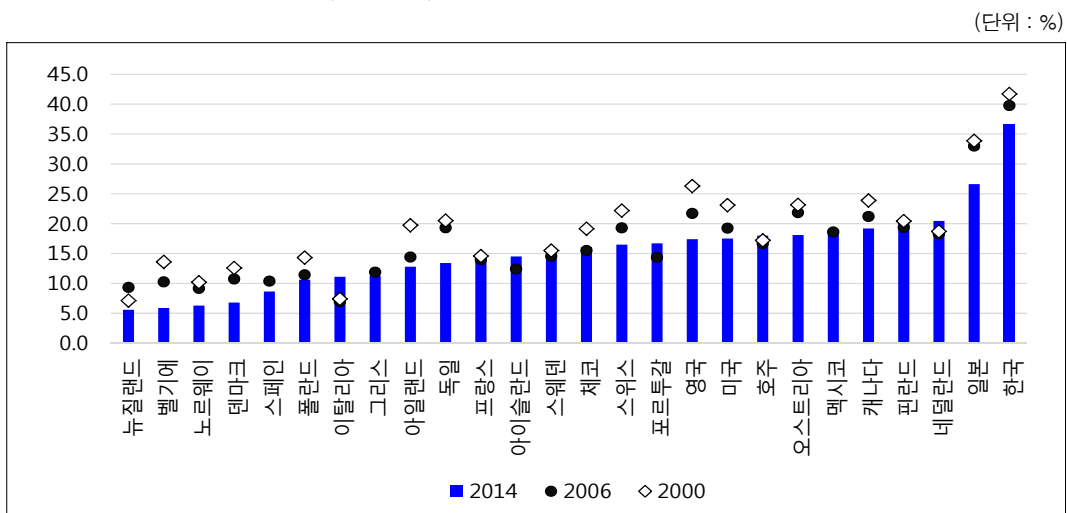


# 소득분위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국제비교

- OECD 국가의 전일제(full-time) 근로자 남녀 임금격차(중위임금 기준)는 대략 10~20% 사이에 몰려 있으며, 대체로 대부분 국가들에서 2000년 이후 격차가 줄어든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36.7%이며, 2000년 이후 소폭 감소함.
  -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임금불평등도가 낮고 압축적 임금구조를 가진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남녀 임금격차는 15%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임금격차는 20%에 근접한 수준을 보임.

[그림 1] 남녀 임금격차(2000년, 2006년, 2014년)



주 : 1) 한국의 2014년 기준 임금격차는 36.7%로 이는 여성이 남성(=100.0)에 비해 36.7%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  
 2) 전일제 · 임금근로자의 총소득 중위값 기준임.  
 3) 네덜란드는 2002년, 2006년, 2010년 기준이며, 가장 최근연도가 2012년인 국가는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이고, 2013년인 국가는 뉴질랜드,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이며 그 외 국가는 2014년임.

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60#>

- 한편,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낮은 남녀 임금격차는 주로 고 임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다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선택 편의 효과가 반영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 상위 90분위의 성별 임금격차가 중위 50분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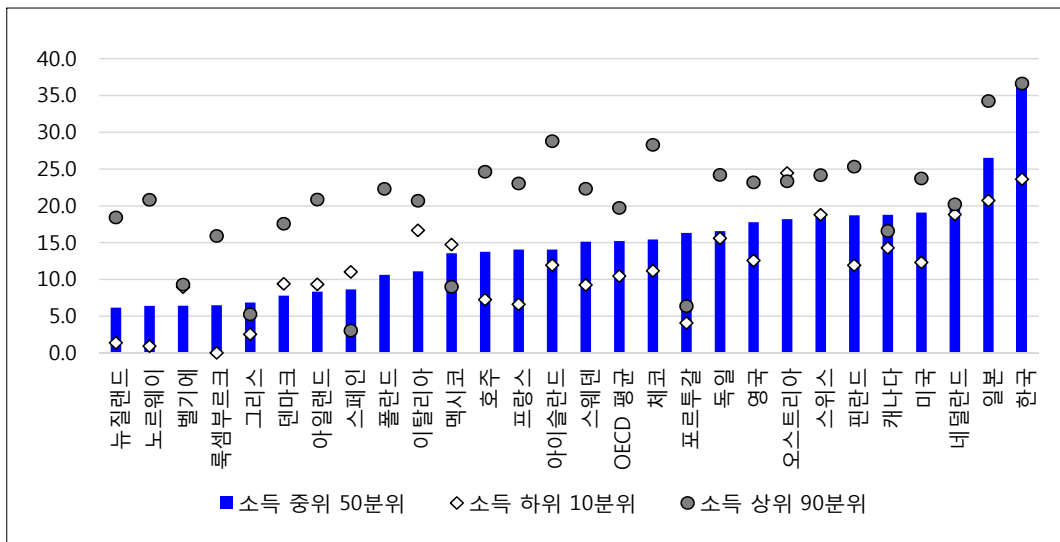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의 소득 상위 90분위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약 35% 수준으로 가장 큰 편이며, 다수의 국가들은 25% 근방에 포진해 있음.
- 반면,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는 소득분위에 따른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 상위 분위의 남녀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유리천장이나 고임금 직종에 여성의 임금이 저평가되는 등의 차별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득 하위 10분위의 남녀 임금격차는 중위 및 상위 분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하위 10분위의 임금격차가 23.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그림 2] 소득분위별(10분위, 50분위, 90분위) 남녀 임금격차(2012)

(단위 : %)



주 : 1)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분위별 총소득의 중위값 기준임.  
 2) 10분위와 90분위 중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터키는 2010년, 칠레, 아이슬란드는 2011년 자료임.  
 3) 50분위 중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는 2010년, 독일, 아이슬란드는 2011년 자료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뉴질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은 소득 하위 10분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저임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교섭 등 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상대소득의 차이는 국가별 임금구조차이, 노조의 역할, 제도의 차이 등 사회적 환경이나 인구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함. 

(정성미,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5월호